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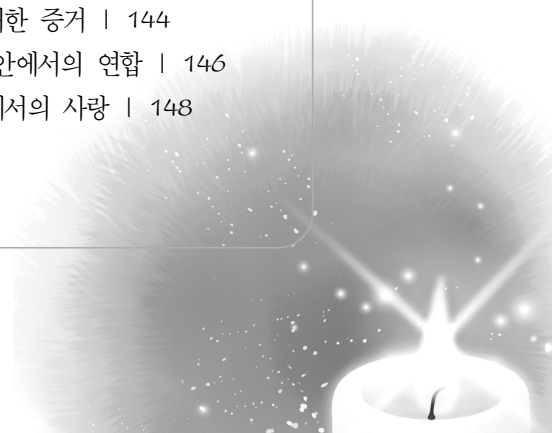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gh Priestly Prayer of Jesus

임 영 호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118
2. 기도의 중요성 | 121
3. 성육신의 목적 | 122
4.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130
  - (1)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요 17:6) | 130
  - (2)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요 17:6,8) | 132
  - (3)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요 17:8, 25, 26) | 134
  - (4) 지키심을 받는 자(요 17:11-12) | 135
  - (5) 보내심을 받은 자(요 17:18) | 137
5. 교회의 5가지 표지 | 139
  - (1) 기쁨(요 17:13): 진리 안에서의 기쁨 | 139
  - (2) 거룩(요 17:14-17): 진리로 인한 성화 | 141
  - (3) 선교(요 17:18): 진리에 대한 증거 | 144
  - (4) 연합(요 17:21-23): 진리 안에서의 연합 | 146
  - (5) 사랑(요 17:26): 진리 안에서의 사랑 | 148
6. 그리스도인의 미래 | 149
7. 결론 | 152



## Abstract

### A Study on the High Priestly Prayer of Jesus

Im, Young-hyo (Kosin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meanings of Jesus' high priestly prayer of chapter 17 in the Gospel of John with missiological perspective. Often this prayer is said as "Prayer of Consecration" or "Final Prayer of Jesus". This high priestly prayer spoken by Jesus gave his disciples not only a remarkable comfort and conviction but also showed them that he will pray for them and all the believers continuously on the throne of heaven even after he will leave this world.

This prayer of chapter 17 in the Gospel of John teach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rayer in Christian life. And the prayer evidently shows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saving believers is to glorify God and to let the glory of God be witnessed among the world.

Furthermore, this prayer states tha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Jesus' incarnation is to give the eternal life to whom the Father gave to the Son without exception. Also this prayer gives the clear identification of Christians. That is, Christians are those who were separated as the Lord's belongings, those who received

and keeping the Word of God, those who know and believe in Jesus Christ, those who are being kept by God, and those who are sent by God. Thus, Lord's prayer denotes that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identification of a Christian is very important thing to the victorious life of belief.

In conclusion, this prayer indicates that the Christians who were saved by God's sovereign grace have 5 marks which those who belong to the world cannot have. The basis of the five marks is truth. Accordingly, the prayer teaches that the Christians should have in the truth the following things: (1) Joy, (2) Holiness, (3) Mission, (4) Unity, (5) Love. At the same time, this five marks link to the five reasons for being of church, that is, (1) Worship, (2) Nurture, (3) Mission, (4) Spiritual Fellowship (5) Service.

Key words | prayer, eternal life, the marks of church, joy, holiness, mission, unity, love

## 1. 서론

요한복음 17장은 주님 자신이 이 땅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주님 자신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17세기의 한 설교자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가리켜 “이 지구상에서 드러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지구상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라고 말을 한바가 있다.<sup>1)</sup>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멜랑크톤은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부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sup>

교회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임종을 맞이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John Knox)는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의 병상에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부인이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다.<sup>3)</sup>

---

1) D. Martyn Lloyd-Jones, *Life in the Spirit: Classic Studies in John 17*, 차동재 역, 『요한복음 강해』, 제 1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4-15.  
2) A. W. Pink,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지상우 역, 『요한복음 강해』, 제 4 집 (서울: 엠마오, 1988), 31.  
3)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15.

20세기 최고의 강해설교자로 여김을 받았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복음 17장뿐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적 삶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우주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할 정도로 본문 말씀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sup>4)</sup>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토머스 맨튼(Thomas Manton)은 요한복음 17장에서 45편의 연속 강해설교를 했고, 그 후 그 설교를 450 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출판하였다고 한다.<sup>5)</sup>

흔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high priestly prayer), “헌신의 기도”(prayer of consecration),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Final Prayer of Jesus)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6)</sup>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주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의 기도인 것이다.

아마도 이 기도는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제자들과의 만찬을 끝내시고 기드론 계곡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 비슬리 머리 (G.R.Beasley-Murray)는 “예수님의 고별기도는 침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

4) Ibid., 16.

5)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England: IVP, 1992), 259.

6) Gary M. Burge, *The New Application Commentary: NIV John*, 김병국 역, 『NIV 적용주석: 요한복음』(서울: 솔로몬, 2010), 593. Gerald L. Borchert, *The New American Commentary: John 12-21*, Vol. 25B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2), 185. 대체사장적 기도라는 명칭은 5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본 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대체사장이라고 언급하였고, 루터교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키트로이스(David Chyträus, 1531-1600)가 본 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XIII-XXI)*, 최홍진 역, 『요한복음 II』(서울: CLC, 2013), 1440.

라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에 직면해서 마지막 만찬의 말미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은 이 기도가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드려지므로 청중이 있기 때문에 중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1-5절], 그의 집 혹은 제사장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6-19절], 전체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20-24절]”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8)</sup>

지금까지 제자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곧 그들의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신 참으로 복된 기도가 아닐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주님께서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7) G. R. 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1-21*, Vol. 36.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2001), 305.

8) Raymond E. Brown, 1442, 1444.

## 2. 기도의 중요성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셨고(눅 6:12-13),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던 것을 복음서는 기록해 놓고 있다(마 6:5-13, 눅 11:1-13, 18:1-8). 이런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드린 주님 자신의 기도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은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기도가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고 있다.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서는 사실상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생애 동안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막 1:35),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시므로(요 11:41-42)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한다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방식이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 아뢰는 때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때는 없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 사이에는 상충되는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는 전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sup>9)</sup>

9)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41, 44.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출 17:11-13, 겔 36:37),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렘 33:3, 마 7:7-11, 눅 18:1, 요 16:24, 빌 4:6-7, 골 4:2, 살전 5:17, 뵤전 4:7, 유 20). 그리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시편을 위시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도들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 3. 성육신의 목적

주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 초두에서 주님 자신이 이 땅위에 찾아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 말씀하셨다(2절).

(1)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

본문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라고 주님은 기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 우주와 그 속에 있는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자연세계와 미래가 다 주님의 권세 아래 놓여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상황과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도 유희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영생을 빼앗아 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주님의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2) 영생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본문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 본문에서 영생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가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그 후에 다시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식의 이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주님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분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생각하셨다는 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는 것, 즉 이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개인에게 대단한 관심을 영원히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자께서 다스리시는 일 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 놀라운 계획을 구상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 여기서 또 한 가지 끌어내고 싶은 요점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는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나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임을 안다.”<sup>10)</sup>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위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10)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80.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확실한 것이며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명백한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살게 되든지 둘 중 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지만,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는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3)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

본문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설교자로 알려졌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것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다.<sup>11)</sup> 레이몬드 E. 브라운 역시 영생을 가져다주는 지식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며, 이 지식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요 8:32),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sup>12)</sup>

왜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아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여기에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개인적이 친밀한 경험적인 앎을 말하고 있다. 주경신학자 안드레아스 케스텐버거(Andreas J. Köstenberger)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living in fellowship with God)”이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마틴 로이든 존스는 본문에서의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sup>14)</sup> 따라서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있어 이런 앎이 지속적인 행위임을 암시해주고 있다.<sup>15)</sup> 콜린 G. 크루즈(Colin G. Kruse)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구약성경에서와 같이 이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응답과 순종 및 교제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지금 경험되면서 부활 때에 완성되는 영생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6)</sup>

11) Ibid., 187, 204.

12) Raymond E. Brown, 1448-1449.

13) Andreas J. Köstenberger,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Joh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488.

14)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186.

15) Raymond E. Brown, 1431.

16) Colin G. Krus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John*, Vol 4. (England: Inter-Varsity Press, 2003), 114. 크루즈는 예수님의 사역은 영생의 사역이며(요 10:10, 16:33) 이 영생을 부여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 수혜자들을 위해 버리는 것을 필요로 하였

그러면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인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sup>17)</sup>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참”이라는 단어는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로서 “가짜의, 불완전한”이라는 단어의 반대 형용사이다. 우상과 같은 가짜가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놓은 가짜 신(神)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우상들의 정체에 대하여 성경은 폭로하기를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

고(요 6:51, 10:11, 15), 이 영생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수혜자들에게 중재된다(요 5:24, 6:63, 68)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요 3:15-16, 36, 6:40, 47, 20:31).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요 1:13)”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Ibid., 114-115.

17) 레이몬드 E. 브라운은 “요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며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포함한다(요일 1:3, 4:8, 5:3).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친밀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안다’와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다. Raymond E. Brown, 1448.

이렇게 우상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바로 이어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위대하시고 엄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누가복음 4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직명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요 14:6). 영국의 강해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원리이며, 이 구절에 담긴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8)</sup>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289.

는 말씀 그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분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죄의 장벽을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인해 죽음에 처하게 되어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들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그리스도의 전기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sup>19)</sup> 예수님의 삶은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그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졌던 것을 복음서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영적 순례자이며 체류자로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이다.

---

19) Ibid., 211.

## 4.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영국의 강해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주요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며,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즉,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죄와 악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로서 부르심과 구속함을 받았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17:10), 다음 5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다.

### (1)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요 17:6)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백성들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를 실제로 17장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2, 6절에서 두 번, 7, 9, 10, 24).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으며, 주님께 드러진 자들로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20) Ibid., 336.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특별한 표적이 되어져 있기에 주님은 악한 자로부터 보전해 줄 것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15절),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행 20:29-30, 엡 6:12, 벧전 5:8).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강력한 영적 대적을 직면해야 하는 자이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권세잡는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요일 2:15-16).

특별히,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도 11절에서 23절까지 세상이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세상”이란 표현은 이 시대의 세속적인 사고이며, 비성경적인 세계관이며, 전체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대적들과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sup>21)</sup> 이런 세상의 유혹과 꾀박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11절과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성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고,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눅 21:34-36, 22:45-46).

더 나아가,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이기에 본문 16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이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지 아니하신 것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졌기 때문이며, 부르신 자들의 점진적인 성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요청되어지기 때문임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다(요 17:17-18). 이 점에서 본문은 수도원

21) Ibid., 401.

적인 은둔주의는 잘못된 사상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 이 사상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서 격리시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해서 불행스럽게 보이는 것들도 유익한 것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과 파멸과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롬 8:35-39).

## (2)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요 17:6,8)

주님은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 본문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6절 마지막부분에서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8절에 “이것을 받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 자신의 것으로 굳게 붙잡는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다. 순회성경연구교사로 유명한 A. W. 핑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을 한바가 있다.<sup>22)</sup> 대제사장으로 이 땅위에 오신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의 실패와 결점과 미성숙의 부분들을 알고 계셨지만 미래에 온전히 변화되어질 그들의 성숙한 모습을 예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sup>23)</sup>

여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는 동사는 “테레오”라는 단어로써 보존과 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속에 잘 저장해 두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잘 보존이 되어져야 그 말씀을 준수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에 주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외에는 어느 것도 실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바 있다.<sup>24)</sup>

22) A. W. Pink, 59.

23) 원문성경에서는 “지키었나이다”라는 동사는 현재완료형으로 “제자들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표현으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드러졌던 이 시점까지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대한 과분한 인정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24)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328.

## (3)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요 17:8, 25, 26)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 되심을 알고, 메시아로 이 땅위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 본문 8절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었기에 주님은 이들이 땅위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였던 것을 복음서들이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영국의 강해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을 믿는다. ... 기독교의 여러 교리들을 믿어도 이 핵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25)</sup>

그런데, 본문에서 “안다”는 단어는 추상적인 앎이 아니라 “생명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sup>26)</sup>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앎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개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안다”(ginosko)는 단어를 관계를 통한 인격적인 앎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러한 앎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25) Ibid., 320, 321.

26) William Hendriksen,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유평기 역, 『요한복음 주석』(서울: 아가페, 1976), 459.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요 1:10, 4:42, 6:69, 8:19, 8:32, 10:4, 14, 14:7, 17:3, 25, 19:35). 따라서 예수님은 본문 26절에서 이러한 앎이 앞으로 계속되어 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요 16:13-15).<sup>27)</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분 안에 있으며 그 분이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그 분이 주관하시는 삶의 영적 체험과 앎이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는 자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요 15:7, 롬 8:1, 갈 2:20, 고후 5:17, 빌 3:10-13, 골 1:9, 벧후 3:18).

#### (4) 지키심을 받는 자(요 17:11-12)

주님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본문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sup>28)</sup>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기에 “보전한다”는 동사는 테레오(*teleo*)라는 단어로써 단 한 마리의 양도 길을 잘못 들어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양떼를 돌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키었나이다”라는

27) J. Ramsey Michael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0), 882.

28) “이름은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을 권위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한다.” Merrill C. Tenne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John, Acts*, 『엑스포지터스 성경연구 주석: 요한복음, 사도행전』(서울: 기독교지혜사, 1982), 247.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지시하기도 한다.” F.F. Bruce,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83), 577.

동사는 피라소(phulasso)라는 단어로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주시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전과 번영을 잃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막아주시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신다.”<sup>29)</sup>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고자 하시는 주님은 자신이 보호하고 지켰던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 위탁하시는 기도를하신 것은 주님이 얼마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복된 삶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기간 중에 부르신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친히 가르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몸소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꾸짖기도 하시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므로 장차 발생되어질 환난과 위협에 잘 대처하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눅 8:4-15, 11:1-4, 13:1-5, 17:1-4, 22:31-34).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지키심에서 제외된 자가 바로 멸망의 자식인 가롯 유다임을 언급하십시오. 유다는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요 6:70-71, 13:11, 18, 26-30). 유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던 비그리

29)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385.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2가지 다른 단어인 보존(tereo)과 지킴(phulasso)에 대하여,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첫 번째 단어는 제지(restraint)에 의한 보호를 말하며, 잃지 않도록 간직하고 경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언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단어는 외부의 위협들로부터의 보호를 가리킨다. 이는 자신의 집을 파수하는 강한 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보호의 행동이다(눅 11:21)”라고 설명하고 있다. John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ohn 12-21* (Chicago: Moody Publishers, 2008), 278.

스도인으로 주님의 지키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요 6:70).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이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산다거나, 성경을 더 많이 안다거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다. 가롯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면 3년 동안은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거듭남이다.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을 받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sup>30)</sup>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강한 팔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보내심을 받은 자(요 17:18)

예수님께서서는 본문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파송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뒷받침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에 이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20:22), 이는 파송받은 자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권능을 힘입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강화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30)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394.

(요 15:26)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한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놀라운 복음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사도행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 17절과 19절이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19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sup>31)</sup>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하나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즉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31)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복음』(서울: 성문사, 1958), 580.



대변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의 기도가 일깨워주고 있다.

## 5. 교회의 5가지 표지

존 스토틀은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백성들이 (1) 진리 (2) 거룩함 (3) 선교 (4) 연합의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sup>32)</sup> 본고에서는 5가지 표지로 구분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쁨(요 17:13): 진리 안에서의 기쁨

주님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시간이 도래했음을 아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한 몸으로 당해내셔야 하는 고난의 때를 앞두고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제자들의 참된 행복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주님 자신에게 있었던 참된 기쁨을 충만히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더욱이, 이 기도에 앞서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강화(요 13-16장) 가운데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이 기쁨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요 14:28, 15:11, 16:20-24). 또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세상 중에서 주님께 주신 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요 17:12),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요 17:15)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주님의 간구는 제자들이 모든 슬픔을 이기고

32)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England: IVP, 1992), 261.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게 하는 원천이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 서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서신 기록의 목적이 기쁨의 충만임을 분명히 하므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두드러진 표지가 되어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기쁨이 교회의 첫째 되는 표지가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즐거워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셨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3)</sup> 그는 그리스도인은 영원만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최악 세상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측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34)</sup>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드린 기도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3)라고 언급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어짐을 암시해주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말을 하옵는 것”에서 이 말이란 “예수님이 밝혀주신 위대한 교리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 창세 전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소유하셨다는 것, 그리고

33)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360.

34) Ibid., 367-368.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 자신이 이 땅위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기쁨을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 기쁨은 육신적 쾌락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세속적인 유한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느끼시는 참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기쁨(히 12:2)이며,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배반을 견뎌낼 수 있는 기쁨(요 16:31-32)이고, 환경이나 사건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이다(눅 10:21, 살전 1:6). 더욱이,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다(롬 8:38-3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이 기쁨이 없다고 할 때 주님과 그가 하신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다.

## (2) 거룩(요 17:14-17): 진리로 인한 성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 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

35) Ibid., 376, 378.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망가진 이 세상의 정신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요 1:13)이며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요 3:5)이며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요 15:19)이기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에 지배를 받는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존 스토틀트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분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14절), 즉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살도록’(11절) 부르신다”라고 말한다.<sup>36)</sup>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본문 17절과 19절에서 사용된 “거룩하게 하다”(hagiazō)는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다”는 의미와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로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거나 혹은 그의 쓰임에 바쳐진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19절의 “거룩하게 하다”는 동사의 의미는 두 번째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며, 17절의 “거룩하게 하다”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17절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sup>37)</sup>

그러므로 본문 17절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밝혀주고 있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는 “성화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sup>38)</sup> 레이몬드 E. 브라운도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36)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England: IVP, 1992), 263.

37) D. Martyn Lloyd-Jones, *Growing in the Spirit: Classic Studies in John 17*, 이용태 역, 『요한 복음 강해』, 제 2권 (서울: CLC, 2003), 15-16.

38) Leon Morri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731.

영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9)</sup>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우선적인 책무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양식을 잘 섭취하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죄와 악의 영향과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미국의 강해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 Boice**)는 거룩에 이르는 첩경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매일의 생활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40)</sup>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 나갈 때에 가능하게 됨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시 119:9-11, 갈 5:17, 요일 2:14, 3:9, 5:4,18). 그리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도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39) Raymond E. Brown, 1465.

40) James M. Boice, *The Gospel of John: An Expository Commentary*, 서문강역, 『요한복음 강해』 IV,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584.

### (3) 선교(요 17:18): 진리에 대한 증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고 확언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사회의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요 17: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 해야만 한다.

주님은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함을 기도하신 후에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구인 믿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이다. 따라서 선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제대로의 선교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성화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레이몬드 E. 브라운 역시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깨끗함이 아니라(15:3), 사명을 위한 깨끗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1)</sup>

본문 10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41) Raymond E. Brown, 1465.

것을 보므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는 깨우쳐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나 방법 이전에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성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도행전이나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서 보듯이 그것[전도]는 주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영향력있는 삶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으며,<sup>42)</sup> 네델란드의 선교신학자 베르카일(J. Verkuyl)은 “1세기 기독교의 경이적인 확장은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군중들 가운데서 나타내 보였던 기독교신자들의 매력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이를 지적해 주고 있다.<sup>43)</sup> 주님은 마지막에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전도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충만했던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과 세계역사가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전 2:4-5). 효과적인 선교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메시지와 삶이 일치되어질 때에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성화가 요청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와 삶의 불일치의 간격이 크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때, 참으로 이 성화의 문제는 교회의 선교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복음전파의 관점에서 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는 일깨워 주고 있다.

42) D. Martyn Lloyd-Jones, 제 2권, 28.

43) J.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anslated and edited by Dale Coop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333.

#### (4) 연합(요 17:21-23): 진리 안에서의 연합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삼위 간에 갖는 연합처럼, 내적이고 신비적인 동시에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 외적이고 조직적인 연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로서 상호 연합되어 있음을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도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연합임을 밝혀주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회는 참으로 영적일 때 유일하고 참되게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의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연합이며 또한 평화의 결속이다. 성경이 추구하는 실제적인 연합은 성령의 연합이다”라고 적절히 말하고 있다.<sup>44)</sup> 윌리엄 헨드릭슨(William Hendriksen)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하나됨과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됨 사이에는 단순한 대조 이상의 것이 있다. 후자는 전자의 모형이 아니라 전자의 기초가 되며 전자를 가능케 해 준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45)</sup>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언급하신 이 연합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전파하게 될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합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요 17:8, 20). 즉 말씀 안에서의 연합이고 말씀이 연합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선교신학자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사도들이 전한 진리와 성령을 통한 신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20세기 교회들이 주로 몰두해 온 일은 구조적 연합에 대한 추구였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주는, 그리고 그 연합이 자라게 하는 수단인 진리와 생명은 추구하지 않았다”라

44) D. Martyn Lloyd-Jones, 제 2권, 33.

45) William Hendriksen, 473.



고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sup>46)</sup>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고백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적인 연합만이 참된 연합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역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다. 그것은 영혼들의 연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철저하게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연합이다”라고 이 연합의 특성을 말해 주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성격의 연합이 아닌 단순히 외형적이고 기구적인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러면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연합은 선교를 위한 연합이다.”<sup>48)</sup> 이 목적을 본문 21절은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문 23절은 그 선교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됨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콜린 G. 크루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sup>49)</sup>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교회의 전도의 효과는 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분쟁으로 유린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0)</sup>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46) John R. W. Stott, 267-268.

47) D. Martyn Lloyd-Jones, 제 2권, 353.

48) Colin G. Kruse, 337.

49) Ibid., 342.

50) John MacArthur, 293.

## (5) 사랑(요 17:26): 진리 안에서의 사랑

주님은 본문 23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 됨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하나 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sup>51)</sup>

3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전 생애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상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데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설명을 한바가 있다.<sup>52)</sup> 중세학자 루페르트(Rupert)는 본문 26절의 그리스도인 속에 내주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과 동일시하기까지 했다.<sup>53)</sup>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고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부여주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고별강화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고 예수님의 사랑

51) 박윤선, 581.

52) Darrell W. Johnson, *Experiencing the Trinity*, 김성환 역, 『삼위 하나님과의 사귄』(서울: IVP, 2006), 50.

53) Raymond E. Brown, 1496.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런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므로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의 기도는 가르쳐 주고 있다.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 6. 그리스도인의 미래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마무리하셨다. 본문 24절은 17장 전체의 주요 교훈의 요약인 동시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중 자기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간구로서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영국의 강해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다. 그것의 근본적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주는 것이다. 또한 그 복음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로 서게 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하여 분명히 믿도록 해준다. 또한 그 복음은 우리를 사망과 무덤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안전하게 확보되었음을 알려 준다.”<sup>54)</sup>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보장된 미래가 무엇인가? 첫째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 구원의 축복이다. 본문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빌 1:23)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후 5:8)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섬겼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님이 계신 그 곳에서 함께 누릴 축복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과 22장 1-5절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4) D. Martyn Lloyd-Jones, 제 1 권, 367.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무한한 영광을 주를 믿고 따랐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주님은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주경신학자 콜린 G. 크루즈는 “제자들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도,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귀하신 구속자의 영광을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바가 있다.<sup>55)</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부르신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창세전에 가지셨던 무한한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은 지상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실 때에 인성을 벗어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신인(神人)으로 돌아가셨기에 신인으로서 가지시는 특별한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될 것을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롬 8:29-30, 고후 3:18). 이러한 주님의 간구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닐 수 없다.

---

55) Colin G. Kruse, 342.

## 7. 결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 널리 증거되도록 함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요 17:1, 10, 21, 23).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주님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구주되심을 언급하신 것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언급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임을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영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 본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요 17:2, 6, 9, 14, 16, 18, 24).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만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길에서 이미 80%를 간 것이다”라고 말을 했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56)</sup>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6절, 9절)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14절, 16절). 따라서 나머지 4가지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6절), 이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들을 구속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기쁨이 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게 하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다(19절).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변화되어질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숙한 자들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참으로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있다(6절).

따라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기독교의 복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의 능력과 소망과 위로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부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직면하는 삶의 고난과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질 수 없는 5가지 표지들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5가지 표지들의 기초는 진리이며,

---

56) D. Martyn Lloyd-Jones, 제 1권, 256.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 안에서의 (1) 기쁨과 (2) 거룩과 (3) 선교와 (4) 연합과 (5) 사랑의 표지를 지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이 5가지 표지들은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인 (1) 예배와 (2) 양육과 (3) 선교와 (4) 교제 (5) 봉사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신 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기도(24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미래가 안전하게 확보되었음을 알려 주는 복된 약속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시면서 만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주하실 것을 언급하심으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종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 주고 계신다(26절).